

러시아로의 수출 30% 감소, 수입은 90% 증가

2022/4/20 일본경제신문

일본 재무성이 20일 발표한 3월의 일본 무역통계 속보에 의하면, 對러시아의 무역수지는 1,366억엔의 적자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였을 때 5.5배 늘어났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물류망 혼란과 일본 정부의 수출금지 조치를 배경으로 자동차 관련을 중심으로 수출이 509억 엔으로 31.5% 줄었다. 수입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 가격이 급등하면서 89.6% 증가한 1,875억 엔이었다.

수출은 자동차 부품과 원동기가 70% 감소하고 버스·트럭도 44% 줄었다. 자동차와 대형 건설사들은 우크라이나 위기에 따른 물류망 혼란 등으로 현지 공장을 멈춰 섰다. 일본 정부가 3월 발표한 고급차 등의 대러시아 수출 금지 조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액은 석탄과 LNG가 2배 초과, 원유가 약 60% 증가했다. 수량 기준으로 LNG는 10% 오르는데 그쳤고 석탄과 원유의 수입 양은 감소했다. 일본 기업에는 러시아산 자원의 대체 조달처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수입액이 늘어났다.